

전남도내 해수욕장 개장 임박 “코로나 막고 경제 살린다”

내달 9일~ 8월 29일까지 11개 시·군 56곳 운영
지난해 이용객보다 20% 증가한 110만 방문 예상
체온스티커 도입·사전예약제 등 ‘안심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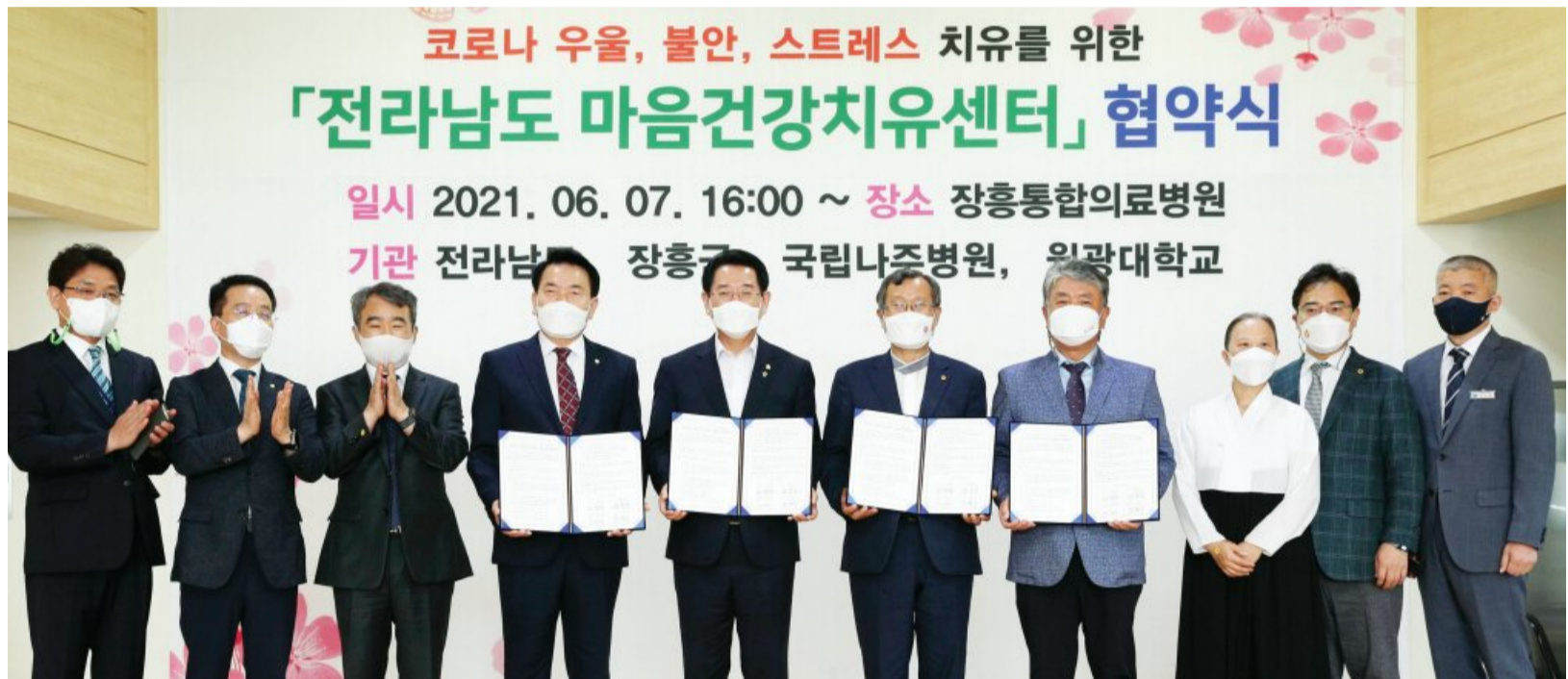
전남도내 해수욕장 56곳이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야외 관광지 선호 등 지난해와 사정이 달라진 만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년 대비 20%(약 3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달 9일부터 전남지역 해수욕장이 순차적 개장에 들어간다. 발표·덕흥·나로 우주해수욕장 등 고흥지역 해수욕장 11곳, 장흥 수문해수욕장, 가마미·송이도 등 영광지역 2곳, 관매도 등 진도지역 4곳 등이 9일 문을 연다. 8월 29일까지 12개 시·군에 걸쳐 56개 해수욕장이 운영된다. 해수욕장에 따라 운영 기간이

긴 곳은 최장 52일이다. 지난해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92만명. 올해 방문객은 이보다 20%가량 늘어난 110만명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운영 기간이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긴데다 코로나 백신 접종, 여행객의 야외 관광지 선호 현상 등이 맞물리면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이다. 이에 전남도는 해수욕장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는 살리되 코로나 19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이용객 밀집을 막는 한편 체온스티커 등을 통해 이용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용객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경우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코로나 19 대응반을 꾸려 확진자 발생 등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장 한 달을 남겨두고 이날 도청에서 코로나 19 방역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시 등 12개 시·군과 서해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17개 관련 기관이 참여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 방안 및 안전관리계획과 준비상황 등을 사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13개소를 운영하고, 해수부가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선정한 13개 해수욕장 홍보 등을 확대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요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구명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안전장비 7종, 3000여점을 확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의 해수욕장에 여름철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객의 안전과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수욕장 방문객들께서도 방역수칙과 안전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 협약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 오후 장흥군 인양면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치 발효 미생물 유전체 DB ‘한 곳에’

세계김치연구소, 네이처 자매지에 논문 게재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가 탑재된 ODFM(Omics Database of Fermentative Microbes, 발효 미생물 유전체 DB)이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데이터(Scientific Data)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ODFM은 김치, 된장, 젓갈, 천일염, 식초 등 발효식품과 첨가원료에서 유래한 미생물의 오믹스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으로, 국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DB 중 논문이 게재된 첫 사례다. 오믹스(Omics)는 전체를 뜻하는 말인 옴(ome)과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익스(ics)가 결합된 말로, 유전체, 전자체, 단백질체 등 총체적인 개념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하는 생물학 분야다. ODFM은 발효식품의 세균, 고균, 진핵 생물 및 바이러스 등 100군주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비롯한 메타유전체, 메타전사체 등의 염기 서열과 해독 정보 총 125건을 탑재하고 있다. 또 사용

자가 유전자 다양성 및 분류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해 직접 입력한 균주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미생물의 오믹스 염기 서열 등의 정보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발효식품 생태계 내 마이크로바이옴 전체의 유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김치의 맛과 품질 향상을 위해 활용될 후보 발효 균주를 평가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웹사이트(https://odfm.wikim.re.kr)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는 물론 발효식품 미생물 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최화중 세계김치연구소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 및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미생물 오믹스 데이터베이스의 학문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발효 미생물에 대한 유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국내외 발효식품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지식재산기업 육성 사업 효과 ‘톡톡’

116개 중기 지원...수출 110%·고용 15% 늘어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전남도의 ‘지식재산(IP)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증가,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6개 중소기업과 50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지식재산 컨설팅 및 사업화 334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의 총 고용이 15%, 수출기업 45개 사의 수출액이 110% 증가했으며, 33명이 신규 창업하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의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의 경영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주)케이에스는 특허·디자인 등 5건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신규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최초로 코로나 진단 검체 수송키트를 미국 FDA에 등록했다. 생산공장도 증설해 해외 5개국에 수출, 수출액이 2019년 3억원에서 지난해 250억원으로, 매출액이 2019년 23억원에서 지난해 35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지인은 2건의 국내외 신규 특허를 출원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농업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제품을 상용화했다. 2019년 6명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10억원으로, 2019년 6명이었던 고용인원이 지난해 15명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또 예비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출원 50건, 신규창업 33명의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의 생산성과 성장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블루 이코노미 기반의 전남형 뉴딜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에너지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170개사 이상 기업에 지식재산 컨설팅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화할수록 지식재산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컨설팅 및 사업화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c.or.kr)의 전남지식재산센터(www.ripco.org/jeonnam)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은 오는 18일까지 공모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백지화 환영”

광주 시민단체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8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광주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한 광주시의 결단은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참여자치21은 다만 준공업지역 지정 이후 고

압전선 설치, 공장 소음과 악취 등으로 정주여건이 나빠진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구성원 총의, 성숙한 합의를 토대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개발 사업도 시민과 기업의 이해를 조화시키는 등 각각의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 지정 후 민원이 지속된 광산구 평동 일대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90일간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
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